

# 무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 황정수 군수 등 150여명 참석 복지사각지대 신속 발굴 기대

무주군은 제6기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원 구성을 마치고 28일 출범했다.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발대식(무주군 주최,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주관)에는 황정수 군수(공동위원장)를 비롯한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과 전선자(민간)위원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종성 회장, 전북 14개 시군협의체 이 해석 위원장 등 내빈들과 각 읍면협의체 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원 임명식과 선서식에 함께 했으며, 선서문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신속하게 발굴해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을 앞당겨 가자고 다짐했다.

또 착한가정과 착한가게 제1호점에 기념 현판을 증정해 노블리스 오블리주 무주운동의 시작을 알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황 군수는 "우리가 하려는 일은 사랑을 나누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도 진심이 중요하다"며 "이웃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가슴을 뜨겁게 데우고 우리가 맞잡은 두 손이 마이더스의



제6기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에서 대표 선서를 하고 있다.

손으로 거둬나 이웃들에게로 향하는 복지서비스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인해 우리지역 전체로 공명체 의식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는 고마운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이 조금 더 앞당겨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연계 협력기구로 주민들의 사회보장 욕구에 맞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지원과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선자(민간)위원장은 "오늘 발대식은 민관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보장기관과 단체, 개인의 복지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마을만들기 일번지' 진안군, 벤치마킹 줄이어

### 청도군 공무원 45명 방문

진안군에 지난 27일 청도군수를 포함한 45명의 청도군 공무원들이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마을만들기 일번지인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시스템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사례, 마을단위사업의 우수 사례, 6차산업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진안군은 2011년부터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에 현재의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소규모 사업부터 단계별 사업 추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1년에는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진안마을(주)를 설립하여 마을과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유통과 소비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300여 농가와 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며 30여명의 상근인력을 채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



27일 청도군수를 포함한 45명의 청도군 공무원들이 진안군을 방문했다.

터를 설치하여 주민교육 및 마을 네트워크 핵심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사업준비지구부터 사업완료지구까지 체계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부에서 매년 150명 이상이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 전담팀 운영과 마을만들기 관련부서의 행정협조회의를 통해 행정 내부의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터주 단체협의회 등을 통해 행정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마을간사제도를 도입하여 마을사업지구에 부족한 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시스템을 통해 마을만들기 선진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진안군의 사례를 배우고 연구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와 마을, 연구기관 등이 벤치마킹을 위해 진안군에 매년 약 350명 1만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청도군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원연정마을, 진안마을(주), 애농 등을 방문하였다.

이승률 청도군수는 "청도군과 진안군은 비슷한 농업 및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업무 교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원진알미늄 원경의 대표, 지역산업진흥 '포장' 수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적의 투자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완주군 산업단지에 위치한 (유)원진알미늄이 지역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완주군은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16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자 포장'에서 (유)원진알미늄의 원경의 대표이사(유)원진알미늄분야 '포

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원진알미늄은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업단지(본사:1공장) 및 완주테크노밸리산업단지(2공장:연구소)에 그 기반을 두고, 알루미늄 압출 형태, 창호, 난간, 태양광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 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2003년 법인 설립 이래 매년 평균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성장과 고용

창출, 조달청 금속재창 분야 6년 연속 1위, 전북 전문건설협회 기성실적 2년 연속 1위(14~15년도) 달성 등 국내 알루미늄 창호 업계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전북 유망기업이다. 이번 포장을 수상한 원경의 대표는 그간 지역 인재 최우선 및 의무채용 시행, 전북지역 투자 지속적 확대, 지역사회의 재능기부 및 급진기부 등을 통해 지역산업 진흥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농업인회관 내년 12월 준공... 40억원 투입·지상 3층 규모

완주군 농업인의 복지 및 정보 교류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할 농업인회관이 건립된다.

군은 농업인회관 조성사업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업인회관은 총사업비 40억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 2,961㎡, 건 축면적 1,371㎡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1층에는 현재의 농약 안전성 분석실을 확장·이전 설치해 완주 로컬푸드와 연계한 안전먹거리생산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할 계획이다.

2층에는 농업인단체 사무실과 회의실을 조성해 농업인들의 정보교환 및 사무공간을 마련, 완주농업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농업인회관 건립을 통해 농업인 애로사항의 빠른 해결 및 정책반영이 수월해지는 등 행정과 농업

인들과의 소통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기대했다.

김중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완주군은 전주를 둘러싼 지리적 특성과 농업단체 사무실 부재로 농업인들의 소통·교류에 애로를 겪어 왔다"며 "농업인회관 건립을 계기로 자생력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인구절벽, 이대로 두실 건가요"

### 무주군의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대책 마련 촉구

"2016년 8월, 인구 2만 5천 선이 무너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주군이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이해양 부의장과 이성수 의원이 제25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절벽, 지자체 소멸이라는 위기가 열 나라 일본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것이다.

이해양 부의장은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를 인용하여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하면서 무주군의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는 단순히 구호에만 그친 허울뿐인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전 부서에서 인구대응 지표를 발굴하고 전력을 세워 인구정책 총괄기능 대책을 마련할 것 ▲출산·육아·보육·청소년 분야에 대한 균형있는 투자를 할 것 ▲특화된 시책발굴과 현실적인 지원을 할 것을 언급하며 무주에 거주하고



이해양 부의장 이성수 의원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발상 전환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성수 의원은 인구 급감의 원인으로 교육, 의료환경, 출산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일자리 부족을 꼽고, 인구 반등의 대안으로 관광형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몇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무주의 장점을 극대화한 홍보전략 재편성 ▲반딧불축제 전면 개편 ▲적상산 둘레길 조성 ▲강변 유람, 소가리낚시 등 레포츠친구 만들기를 통해 무주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이 다시 돌아오는 무주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28일 삼도봉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발대식에서 황정수 무주군수와 유승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 그리고 김천시와 영동군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무주·김천·영동 삼도봉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출발

### 무풍면서 발대식 가져

삼도봉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발대식이 28일 무주군 무풍면사무소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과 무풍과 살천면 주민, 그리고 김천시와 영동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버스 시승 등의 기념식에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의료서비스에 올라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고 문화차량에서 상영하는 영상물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 군수는 "행복버스는 무주와 김천, 영동이 주민건강과 행복을 생각해서 운영하는데 의미가 있고 세 지역 60개 마을 주민들에게 함께 한다는 든든함, 살아가는 즐거움을 안겨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있다"며 "여러분들 향해 출발한 행복버스가 이름처럼 행복을 안기고 삼도봉으로 뚫린 무주와 김천, 영동이 행복버스로 더욱 더 돈독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9개면 60개 마을)하는 삼도봉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는 전북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이 협력해 의료·문화 취약 계층에게 보건 의료서비스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김천시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 보건소 자체 사업과 연계하는 의료서비스를, 무주군에서 영농상영과 건강 체조교실, 건강 관리교육 등을 진행하는 문화버스 운영을 주관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 군산대학교 박물관, 30일 문화의 집에서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 조사성과 학술심포지엄'

진안군이 군산대학교박물관(관장 곽장근)과 공동으로 진안 도토리 중평청자가마터 조사성과를 종합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진안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 조사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진안 문화의 집 마일에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된 진안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터 발굴조사 성과를 종합하고, 가마터의 성격과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개최된다. 심포지엄은 김영원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총 7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펼쳐진다.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는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의 특징과 교역에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가마터 조성당

시 대외교류 관계와 우리나라 초기 청자 가마 축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담말시기 월요(越窯) 가마의 특징 등이 발표된다. 또한 대표적 초기청자 유물인 해무리굽완의 변천에 대한 연구와 초기청자가마의 자연과학적 분석내용, 가마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발제도 시 발표에 담길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도자사 전문가인 이희관 서강대학교 교수,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 정상기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권혁주 대한문화재연구원 조사실장을 비롯하여 김규호 공주대학교 교수, 이주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펼쳐진다.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는 도토리 중평 청자가마의 특징과 교역에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가마터 조성당

/진안=우태만 기자

# 특별블로그

### 장수군, 소방합동 훈련 실시

장수군은 화재 발생에 대한 초기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소방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28일 군청 지위소방대등 공직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무진장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된 이날 군청 지위소방대원들은 청사 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 신속한 상황 전파와 동시에 직인 대피를 유도하고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또한 무진장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의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 등의 장비를 동원해 화재진화, 복구까지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로 훈련이 이뤄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 완주 용진읍민의 날 '10월 1일'

지난해 10월 1일 읍으로 승격된 완주군 용진읍이 읍 승격 1주년을 맞아 읍민 화합을 위한 '용진읍민의 날' 행사를 10월 1일 개최한다.

이날 용진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제26회 용진읍민의 날' 행사는 용진읍(읍장 전현숙)과 용진읍체육회(회장 정봉락) 주관으로 펼쳐진다.

이날 행사는 '변화의 중심, 완주군의 수도 용진읍'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들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명실상부한 으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자리로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군정발전에 공이 큰 이철기(시천마을 이장), 이순임(양전마을 부녀회장), 정수득(한우협회 완주군지부 용진분회장), 이일구(용진농협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선미(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 부회장)씨 등이 군수포장을 받는다.

올해 용진읍민의 장은 공익상에 백용복씨, 산업상에 이승철 씨, 효열상에 박용규 씨, 애향상에 이임기 씨, 다문화가정상에 서영주 씨가 각각 수상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 장수 기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현장포럼

장수군 기념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양석용)는 지난 27일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년 문예복지관 2층 강당에서 2018년 농촌중심지 공모사업을 위한 현장포럼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념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청을 앞두고 기념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기념년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경찰, 4대 사회적 근절 현장매뉴얼 대응 역량 강화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28일, 여성 청소년계 사무실에서 4대 사회악을 척결하고 전문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간 현장 초기 대응 역량 강화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중요사건 발생시 조치 결과 분석 및 현장 초동조치 매뉴얼에 따른 조치 등 기능별·단계별 역할 수행에 대한 업무처리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현장능력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윤종섭 서장은 "현장 초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처요령을 숙달하고,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통해 주민을 위한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